

익산시민이 뽑은 10대 뉴스는?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익산 다이로움 누적 발행액 2조원 돌파·신청사 이전 순

익산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지역 소식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견인한 주요 사안들을 모아 '2024년 익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0대 뉴스 설문은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14일 동안 진행됐으며 시민 1,488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녹색 정인 도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성'으로 그 꿈을 실현하다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3곳을 준공했다. 도심 곳곳에 조성된 숲세권 아파트와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5년에는 소라산공원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2위와 3위에는 '민생경제의 아이스크림, 익산 다이로움 2조 원 돌파'와 '익산

시, 미륵사지 석탑 품은 신청사 시대 개막이 각각 선정됐다.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돌파하며 시민들의 대표 소비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관에 미륵사지 석탑을 품고 있는 신청사에는 지난 10월 35개 부서가 입주할 예정이다. 54년 만에 청사 이전을 통해 새시대의 문을 활짝 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위로는 '왕궁축사매입부지, 국내 최대 규모 자연환경 복원사업 1차년도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뽑혔다.

왕궁정착농원은 장기간 축산활동으로 인해 수질과 토양이 대규모로 훼손된 곳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환경교육, 생태복원의 국내 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5위에는 '위대한 도시 익산, 새로운 시작이 올랐다. 15년 만에 변경된 도시브랜드 '위대한 도시 GREAT 익산'

은 익산시가 꿈꾸는 미래와 찬란한 과거를 동시에 품고 있다. 한(韓)문화발상지 익산이 갖는 역사적 정체성까지 담고 있다.

이어 6위는 '익산시, 전북을 넘어 전국을 무대로가 차지했다. 익산 최초 3선 정현을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는 반항점을 뚫어 전국을 무대로 삼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7위에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달성'이, 8~9위에는 '2024년 국가 예산 사상 첫 1조원 시대 개막'과 '원광대·원광보건대 글로벌대학 선정,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도약'이 각각 선정됐고, 마지막 10위는 '명품 브랜드 아파트 공급, 7천 만의 인구 증가에 일조'가 뽑혔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 10대 뉴스 선정으로 2024년 한 해를 정리하며 되돌아보고, 시민이 어떤 정책에 공감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겨울철 재해 대책 철저 대비”

강임준 군산시장, 폭설로 인해 시민 피해 최소화 당부

강임준 군산시장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각 부서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2일 강조했다.

강 시장은 작년 군산 선유도에서 58.6cm가 넘는 폭설로 인해 주민들끼리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예로 들며 “사고의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실제 올 겨울은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강 시장은 “군산시청부터 읍면동까지 읍면동 상황을 파악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시민들께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을 맺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공무직노조위원장, 오은정 후보 당선

“타결의 지혜를 겸비한 믿음직한 장수로 앞장서겠다”

제5대 군산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기호 2번 오은정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이번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총 328명의 조합원 가운데 317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96.6%의 높은 투표율로 공무직노동조합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기호 2번 오은정 후보가 203표(64%)를 얻어 114표(36%)를 득표한 기호 1번 양진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 영광을 안았다. 기권표는 11표이다.

오은정 당선인은 △공무직 내부의 차별 △공무원과의 차별 △동등할 권



리 △행복한 일터 △발전하는 노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당선인은 “불공평을 차이가 아닌 차별에서 찾겠다”면서 조합원과 의 소통을 제일 먼저 꼽고, “단결된 하나의 모습으로 타결의 지혜를 겸비한 믿음직한 장수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은정 당선인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심도 있는 질의 통해 시정 전반 철저 검토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시정 전반을 철저히 검토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들의 기대 충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 예산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고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주기적인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영자 부위원장은 “인구유입 포상금과 인구정책 아이디어 등 지원제도를 확대하면 자연스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시의 재정상

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사업의 폐지와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중앙동 차린로드 조성사업이 지원금, 경영수당과 같은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며 해당 사업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재구성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철원 의원은 “북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이 미뤄진 것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심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북부시장 주차타워 사업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순진영 의원은 “제61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점, 영수증과 채주 등 사용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종합평가 반영,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오임선 의원은 “익산 청년몰은 초기부터 지속가능성 부족과 상권 연계 실패가 우려됐다. 먹거리 위주의 입점 구조와 키즈카페 및 루프탑 등 계획된 시설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경호 의원은 “신중년일자리센터에서 연계한 일자리들이 단순 노무직이나 단기 계약직이 많은데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취업연계 실적 제고와 취업 연계 이후 취업자들에게 대한 사후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조규대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변상금 부과 강제절거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고도 대부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채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영등시립도서관은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12월에는 방문 이벤트·만들기 체험·가족 공연 등 풍성

익산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 가족이 도서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활동, 공연을 준비했다. 익산시는 ‘메리 북스(BOOKS) 마스’를 주제로 12월 한 달 동안 영등·부승·유천·금마·황등 등 5개 시립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기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부터 특별한 북 꾸러미를 대출할 수 있는 방문 이벤트, 가족 공연 등이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각 도서관 자료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취약계층에 4000만원 상당 이불 전달 ‘훈훈’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공장장 연무진)가 2일, 추운 겨울 소외계층을 위해 4,000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익산 기탄식에 참석한 연무진 공장장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

다.”라며 “앞으로도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나눔 활동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마다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이바지하시는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품은 확실히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민문화회관 너른홀서

군산 ‘옛날 노래’ 행사 개최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군산시민문화회관(소통협력센터 군산)에서는 음악을 주제로 한 〈사운드 집나지움-군산 ‘옛날 노래’〉 행사가 열린다. 사운드 집나지움(Sound gymnasium)은 청취자를 위한 체조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개관을 앞둔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시범 운영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조성된 너른홀에서 군산의 지역적 특색이 담긴 깊이 있는 음악 청취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군산과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다채로운 음악 감상뿐 아니라 영화 상영, 라이브 공연, 공간 투어도 함께 마련됐다.

군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OST, 군산의 산책길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과거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연주되었던 클래식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군산을 배경으로 영화 상영은 총 3편으로, 14일과 15일에 진행된다. △14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한해진, 안재훈 감독의 애니메이션 〈소중함 날의 꿈〉, △14일 오후 4시에는 장률 감독의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15일 오후 4시에는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각각 관람할 수 있다.

22일에는 군산에서 활동하거나 군산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가 7인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 포크의 거장 김두수, 1세대 재즈피아니스트 임인건과 함께 김순옥(피아노/아코디언), 이원술(베이스), 남예지(재즈보컬), 송하철(색소폰), 송상우(첼로) 등의 동료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재즈와 포크 음악을 중심으로 군산의 산책길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와 함께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공간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도 매주 금·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사운드 집나지움-군산 ‘옛날 노래’〉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다. 단 영화 상영, 라이브 공연, 투어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다. 예약은 소통협력센터 군산누리집(sotong-gunseon.com) 또는 네이버 지도 ‘군산시민문화회관’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